

도요타시 미술관: 다카하시 세쓰로 기념관

옷칠공예가인 다카하시 세쓰로(1914~2007)의 작품을 소개하는 다카하시 세쓰로 기념관은, 도요타시 미술관의 본관과 조각 테라스를 사이에 두고 그 건너편에 세워져 있습니다. 미술관 본관 및 도지엔 다실과 마찬가지로 다니구치 요시오(1937 년생)가 설계한 건물입니다. 상설전시 작품의 대부분은, 다카하시 씨가 1984 년에 도요타시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후 본인이 직접 시에 기증한 작품입니다.

다카하시 씨는 검은 옷을 사용한 혁신적인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은 옷은 전통미술과 장식예술 분야에서 목제품의 마무리에 사용되거나 때로는 물감으로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다카하시 씨의 작품 대부분은 검은 옷칠을 한 위에 문양을 새기고 그 흠에 다시 옷을 칠한 다음, 그 위에 금박이나 금가루를 채워 넣었습니다. 다카하시 씨는 이러한 전통공예의 기술을 이용해 현대적인 예술작품을 제작했습니다. 작품은 고대 동굴화와 토우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새까만 배경에 우아하고 때로는 영적인 문양과 형태를 소재로 삼았습니다.

다카하시 씨의 작품 대부분은 전통적인 병풍과 캔버스에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목조각, 수목화, 악기와 꽃병 등의 생활용품에 옷칠 장식을 한 작품도 제작했습니다. 갤러리 내부는 금색 문양이 돋보일 수 있도록 어둡고 조용한 공간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정원을 바라보는 라운지와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